

시사원정대 NIE 2022-12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1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1주 (9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두고 어떤 입장이 대립하는지 알아본다. 환율의 작동 원리와 영향을 이해한다. 		
활동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법소년의 나이를 두고 대립 중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각각 이야기해본다. -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10
펼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딩북(별책부록) 2~5 찬반배틀 축법소년 나이, 낮춰야 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법소년의 나이가 논란이 되는 이유 - 범죄를 예방하는 법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25 커버스토리 - 오르고 내리고 나라마다 변하는 환율 - 기준이 되는 돈, 힘 센 나라가 정한다 - 환율 따라 웃고 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에 따라 환전하는 법 - 기축통화의 개념 - 환율이 일상에 미치는 힘 	25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의 환율을 찾아보고 1만 원을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면 얼마일지 계산해 보자. 	10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1주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의 작동 원리와 영향을 이해한다. 		
활동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 퀴즈로 어휘 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25 커버스토리 - 오르고 내리고 나라마다 변하는 환율 - 기준이 되는 돈 힘 센 나라가 정한다 - 환율 따라 웃고 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에 따라 환전하는 법 - 기축통화의 개념 - 환율이 일상에 미치는 힘 	15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의 환율을 찾아보고 1만 원을 그 나라의 돈으로 바꾸면 얼마일지 계산해 보자. 	2

찬반배틀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할까?

<어휘 UP>

형사 처분: 범죄를 이유로 벌을 받음.

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촉법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소년원: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 받은 소년을 받아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발문>

1.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대립하는 두 의견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나는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발표해 보자.
2. 미성년자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태도를 그 이유와 함께 생각해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뉴스쑥 시사쑥] 다시 불붙는 촉법소년 논란 “어려도 처벌 필요” VS “아직 보호해야”

[오늘의 키워드]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법을 어김)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경기 용인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이들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처벌을 피하게 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군을 이날 오후 4시께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시에서 키가 꽃힌 채 세워진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이 차를 몰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군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C군 등 2명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력 범죄에 나이가 면죄부(책임이나 죄를 없애주는 조치나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도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형사처벌을 통해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 반면에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아직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형사미성년자도 범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은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지. 분명히 범법 행위인 줄 알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지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지. 실제로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한 형사미성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장난스럽게 경찰서 인증샷을 남기면서 범죄를 거듭한 사실이 알려지며 분노를 사기도 했어.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어숨이: 나는 형사미성년자는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일지. 하지만 형사처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 형사처벌 연령을 1~2세 낮춘다고 해도 전체적인 범죄를 줄어든다고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이 없지.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는 제대로 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하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린이동아 2020-04-20]

커버스토리

오르고 내리고 나라마다 변하는 환율

<어휘 UP>

환율: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 돈과 바꾸는 비율.

거래: 주고받거나 사고팔.

달러화: 미국의 돈 단위.

엔화: 일본의 돈 단위.

<발문>

1. 오늘의 원-달러 환율은 얼마인지 검색해 보고, 1달러를 바꾸려면 우리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자.
2. 매일 환율이 오르내리며 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환율에 따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친구와 짝지어 역할 놀이를 통해 알아보자.

<교사 참고자료>

[이 직업 24시] 신수임 외환딜러를 만나다 “세계 각국 돈의 가치 한눈에”

나라마다 돈의 단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엔’, 미국은 ‘US달러’다. 각국의 돈은 상황에 따라 가치가 바뀌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돈을 가치가 낮을 때 싸게 샀다가 그 가치가 오르면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외환딜러’. ‘외국 돈’을 뜻하는 한자 ‘外換(외환)’과 ‘사고파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 ‘dealer(딜러)’를 합친 말.

외환딜러란 어떤 직업일까? 어린이동아 독자인 서울 중랑구 중화초 6학년 오성재 군과 인천 중구 삼목초 5학년 김경민 양이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사에서 신수임 외환딜러(31)를 최근 만났다.

○ 돈의 가치 오르락내리락

외환딜러들이 일하는 곳에 들어서니 숫자가 잔뜩 적힌 전광판이 눈에 띄었다. 이 전광판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 비해 어떠한지를 나타낸 것. 이 수치를 ‘환율’이라 한다. 만약 우리나라의 환율이 ‘1US달러(미국) 대비 1000원’이라면 ‘1US달러를 사려면 1000원이 필요하다’는 뜻.

신 씨는 “각국의 환율은 수시로 변한다”면서 “외환딜러는 환율의 변화를 살펴 외국 돈의 가치가 낮을 때 그 돈을 싸게 사들이고 가치가 오르면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낸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규모가 큰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이뤄진다.

김 양이 “외환딜러가 이익을 남기면 어떤 점이 좋나요”라고 묻자 신 씨는 “국내 외환딜러들이 국제시장에서 활약하면 그만큼 국내 은행 고객들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계 금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돈의 가치 높아지면 환율 ‘뚝’

나라별 돈의 가치는 왜 바뀔까? 신 씨는 “어떤 나라의 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사고자 하는 양)가 많을수록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 회사가 세계의 환경오염을 한방에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로 국내 경제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리나라 돈을 보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돈의 양은 한정됐다. 공급(팔고자 하는 양)은 일정한데 수요가 높아지니 돈의 가치는 오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은 낮아진다. 돈의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기존 원-달러 환율이 ‘1US달러 대비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경총 올라 1000원을 사기 위해선 기존의 2배가 되는 값인 2US달러

를 내야 한다면? '1000원=2US달러'가 된다. US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은 '1US달러 대비 500원'이 된다.

반면 국내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원화를 국제금융시장에 팔려고 내놓을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 환율에 따라 울고 웃고

오 군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 우리나라에 무조건 좋은 건가요"라고 묻자 신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면 국내 수입업체에겐 좋아요. 기존보다 싸게 외국 물건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 국내 수출업체는 울상이지요. 외국인들이 가격이 오른 한국산 물건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환율에 따라 사람들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진답니다."(신 씨)

외환딜러에게 필요한 자질은 뭘까? 신 씨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신문, 뉴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쏙쏙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다루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게 잘해야 하고 성격도 꼼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외환딜러와의 소통을 위해 외국어도 잘하면 좋다.

[어린이동아 2015-05-13]

커버스토리

기준이 되는 돈, 힘 센 나라가 정한다

<어휘 UP>

기축통화: 나라들끼리 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돈.

식민지: 정치·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 국가로서의 주권을 잃은 나라.

산업혁명: 1700년대 말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기술과 사회의 변화.

파운드화: 영국의 돈 단위.

프랑화: 유로화를 쓰기 전 프랑스의 돈 단위.

<발문>

1. 미국 달러화 지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2. 달러화 대신 기축통화가 될 만한 나라의 돈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1>

[글로벌 포커스] 달러 이은 제2 기축통화로 우뚝... 反유로 정서 확산에 균열도

달러에 이은 세계 두 번째 기축통화인 유로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핵심 요소이자 유럽합중국의 꿈을 가능케 할 초석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올해 1월 1일로 탄생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약관(弱冠)에 해당한다. 비로소 갓을 쓰기 시작해 패기를 떨치기 시작할 때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더 많다.

마리오 Дра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해 말 유로 20주년을 앞둔 기념 연설에서 “유로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향후 20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 “외형 성장” vs “탱빈 감정”

1999년 1월 1일 출범 당시 유로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총 11개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발트해 3국 등이 가세해 현재 19개국에 이른다. 유로 사용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7조6368억 달러(약 8544조 원)에서 현재 15조3904억 달러(약 1경7229조 원)로 2배가 됐다.

사용 인구는 3억4000만 명. 유럽연합(EU) 소속 28개국(5억1300만 명)의 66%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로존 인구 중 38%는 전 생애에 걸쳐 오직 유로만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외형적 성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실속. 출범 당시 100이었던 유로/달러 실효 환율(특정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며 흔히 ‘환율’로 통칭되는 명목 환율과는 다르다)은 2018년 11월 92.7로 하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 EU 통계국 등에 따르면 2018년 6월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유로 비중도 20.3%로 달러(62.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기축통화 서열 2위지만 달러 패권에 맞서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의미다. (하락)

[동아일보 2019-01-12]

<교사 참고자료 2>

중국 위안화 국제기축통화...세계 3대 주요 통화로 급부상

중국 위안화가 마침내 국제기축통화로 정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등과 같은 IMF의 주요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IMF는 11월3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의 IMF 본부 오벌 보드룸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IMF는 성명에서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와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에 이어 SDR의 5번째 기반통화로써 모든 기존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달러화(41.73%), 유로화(30.93%)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번 IMF의 결정에 따라 위안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주요 통화로 부상하게 됐다. 엔화는 8.33%, 파운드는 8.09%다.

위안화의 SDR 편입 효력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SDR 기반통화에 위안화를 포함하는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국 경제를 통합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또한 정부 당국이 몇 년 전부터 중국의 통화와 금융 시스템 개혁을 해나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락)

[동아일보 2015-12-02]

커버스토리

환율 따라 울고 웃고

<어휘 UP>

수입: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등을 국내로 사들임.

수출: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월급: 일에 대한 대가로 돈을 한 달 단위로 지급하는 것.

비자: 외국인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증명서.

<발문>

1. 달러의 가치가 오를 때 미국 여행을 가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표현해 보자.
2. 기사에 소개된 인물 중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환율에 따라 변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교사 참고자료>

치솟는 환율 1240원 육박... 은행 “해외송금 문의 4~5배 늘어”

미국 유학생 딸을 둔 김모 씨(64)는 요즘 수시로 환율 시세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쉰다. 지난해만 해도 딸에게 월 생활비 3500달러를 송금하는 데 390만 원이 들었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440만 원이 필요해졌다. 김 씨는 “환율이 더 뛰면 생활비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230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외환시장과 증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 조만간 환율 1250원 돌파 전망도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9원 급등(원화 가치 하락)한

1237.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1230원을 넘어선 건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4일부터 연일 10원 안팎 급등해 사흘 만에 32.4원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생과 수출입 기업, 해외자산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1210원대를 넘긴 4일부터 해외 송금을 해야 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문의가 4~5배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대학생 김모 씨(25)는 “한국에서 보내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쓰는데 환율 급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고 했다.

특히 항공, 정유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은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상승의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르면 490억 원의 환손실이 발생한다. 아시아나항공도 환율이 5% 상승하면 1933억 원 수준의 세전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 강세의 여파로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돌파할 수 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오면 1300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는 환율 추가 상승을 베풀하며 달러 예금에 뭉치돈을 넣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하락)

[동아일보 2022-03-09]